아시시 평화기도 40 주년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

아시시 정신의 날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마음의 침묵에서 세계의 평화로



다미에타에서 만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술탄 알카밀 1219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페소서 2 장 14 절

2026 년 10 월 30 일 금요일 오후 2 시부터 5 시

정동 작은형제회 수도원 1 층 성당

주최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행사 안내

1986 년 10 월 27 일 아시시에서 이루어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평화 기도 40 주년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와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1 부에서는 여러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 2 부에서는 정교회의 헤시카즘 전통을 통하여 마음의 침묵과 세계 평화의 관계를 성찰합니다.

시간	순서	내용
14:00–14:05	개회와 환영 인사	김일득 모세 작은형제회 관구봉사자
14:05–14:10	동·서방 교부의 평화 말씀	아를의 성 카이사리우스 · 성 대 바실리오스
14:10–15:00	그리스도인 일치와 평화를 위한 기도	떼제 성가 · 시편 · 말씀 · 침묵 · 청원 · 주님의 기도
15:00–15:05	강사 소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15:05–16:45	주제 강의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 통역 포함 100 분
16:45–16:55	감사 인사와 선물 증정	다미에타의 성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 성화
16:55–17:00	대주교 강복과 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참석 인원은 초대장을 받은 100 명으로 제한합니다.

차례

제 1 부 그리스도인 일치와 평화를 위한 기도 3

제 2 부 주제 강의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12

강사 약력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33

주요 저서 및 논문 34

제 1 부 그리스도인 일치와 평화를 위한 기도

14:00–15:00

1 개회 및 환영 인사

작은형제회 대화위원장의 개회 안내에 이어 작은형제회 관구봉사자가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아시시 평화기도 40 주년과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취지를 밝힙니다.

2 동·서방 교부의 평화 말씀

서방 교부의 평화 말씀

아를의 성 카이사리우스 약 470–542 · 『설교집』 제 174 편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 14 장 27 절

평화는 참으로 정신의 맑음이며, 영혼의 평온이고, 마음의 순박함이며, 사랑의 끈이고, 자애로운 친교입니다.

평화는 미움을 없애고, 전쟁을 그치게 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교만한 이들을 낮추며, 겸손한 이들을 사랑합니다.

평화는 불화하는 이들을 화해시키고 원수들을 서로 화목하게 합니다. 평화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평화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평화는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평화는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자신을 높일 줄 모르며, 교만으로 부풀어 오를 줄도 모릅니다. 평화는 모든 이에게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평화 그 자체가 안식이며, 평온이며,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평화를 살아갈 때, 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평화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거스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의 유산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당신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찾으십시오. 평화를 놓쳐 버린 사람은 다시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귀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교부의 평화 말씀과 기도

성 대 바실리오스 330–378

주여, 세상 끝에서 끝까지 퍼져 있는 당신의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룩한 이 교회에 평화를 주시며, 이 거룩한 성전을 세상 끝까지 세워 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모든 공복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평화로운 시대를 허락하시어 그들의 평온으로 우리가 경건과 성화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이끌어 가게 하소서.

주여, 흩어진 자들을 모아 방황하던 길에서 되돌아와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당신의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모든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내리시며, 그들의 온갖 청을 들어주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3 시작 떼제 성가


항상 주님께
El Senyor
항 상 주 님 께 감 사 하 며 항 상 기 뻐 하 라 두 렴 없 이 기 다 리
El Se - nyor és la me-va for-ça, el Se-nyor el meu cant. Ell m'ha_es-tat la sal-va-ci-
Dm C F B♭ C Dm C F F/A C B♭ A
며 오 시 는 주 님 찬 양 하 라 오 시 는 주 님 찬 양 하 라 항 상
ó. En ell con - fi - o i no tinc por, en ell con - fi - o i no tinc por. El Se -
Dm C F Gm/B♭ C Am Dm B♭ C F Dm C

4 시편 기도

떼제 Magnificat 후렴과 시편 130(129) 순례자의 노래

내 영혼이(choral)

Magnificat(choral)



1)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 Magnificat

2)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 Magnificat

3)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Magnificat

4)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Magnificat

5)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Magnificat

6)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Magnificat

7)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 Magnificat

8)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Magnificat

5 말씀 봉독

에페소서 2 장 14–22 절 · 그리스어 봉독 → 한국어 봉독 → 떼제 성가 「내 맘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6 잠시 묵상

말씀 안에 머물며 함께 침묵합니다.

7 청원 기도

각 청원 뒤에 떼제 후렴을 노래합니다.

주여 비오니

O Lord, hear my prayer



진행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전통 안에서 같은 주님을 부릅니다.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한마음으로 청합시다.

정교회

빛과 평화의 주님, 동방의 거룩한 교회들과 한국정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소서. 마음의 침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는 이들이 당신의 빛으로 조명되게 하시고, 그 고요한 평화가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 떼제 후렴 「주여 비오니」

성공회

화해의 직무를 저희에게 맡기신 주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 한반도를 굽어보소서. 서로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풀리고, 남과 북의 모든 이가 대화와 화해의 길에서 다시 만나 한 식탁에 앉게 하소서.

◎ 떼제 후렴

개신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당신께서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던 창조세계와 전쟁과 재난과 가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기억하소서. 저희가 정의와 평화와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하여 교회의 담을 넘어 함께 일하게 하소서.

◎ **떼제 후렴**

가톨릭

모든 이를 하나 되게 부르시는 아버지, 사십 년 전 아시시에서 여러 교회와 종교의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그 희망을 오늘 저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을 맞아, 다미에타에서 술탄을 형제로 만난 그의 용기로 저희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 **떼제 후렴**

진행자 주님, 저희가 소리 내어 바친 기도와 마음속에 품은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8 주님의 기도

각자 자기 교회의 말과 언어로 함께 바칩니다. (배경 음악)

9 마침 기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하늘의 임금이시여, 위로자시여, 진리의 성령이시며,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주시는 이여,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이여, 오시어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의 불결하게 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신 이여, 우리 영혼을 구해주옵소서. 아멘.

10 마침 떼제 성가


찬미하여라
Bless the Lord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Dm G Dm B♭ C F A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Dm G Dm B♭ C Dm

제 2 부 주제 강의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마음의 침묵에서 세계의 평화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15:05–16:45 · 통역 포함 100 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로 영예로운 총대주교 직무 35 주년을 맞으신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삶,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인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게 되어 각별한 영광이자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1986 년 10 월 27 일,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아시시에 초청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만남이 40 주년을 맞는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선종하신 지 800 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성인께서는 1226 년 10 월 3 일 저녁, 아시시 외곽의 포르치운쿨라 소성당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해 레오 14 세 교황 성하께서는 2026 년 1 월 10 일부터 2027 년 1 월 10 일까지를 특별 희년인 ‘성 프란치스코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2 월 22 일부터 3 월 22 일까지는 성인의 유해가 처음으로 공개되어 신자들이 직접 참배하고 공경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1980 년부터 이어져 온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화에도 중요한 영감을 주십니다.[1]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많은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생태 문제에 함께 대처해 온 공동의 여정입니다. 1989 년 9 월 1 일,[2] 디미트리오스 1 세 세계총대주교 재임

[1] 1964 년 1 월 5-6 일, 예루살렘에서 아테나고라스 세계총대주교와 교황 바오로 6 세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는 페라라-피렌체 공의회(1438-1439 년) 이후 두 교회 수장의 첫 만남이었다. 두 교회 사이의 공식 신학 대화는 1980 년에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세계총대주교청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우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환경 파괴에 가담하는 것은 매우 큰 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9 년 11 월 29 일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의 주보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1982 년 3 월 28 일에는, 피조물에 대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사랑과 돌봄이 현대 가톨릭 신자들에게 하나의 도전이며, "자연에 대하여 무심한 약탈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것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남아 우리 뒤에 올 이들에게도 따뜻하고 친근한 환경이 되도록 돌보라"는 일깨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1990 년 1 월 1 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이(동물과 식물과 자연의 힘, 그리고 태양 형제와 달 자매까지도) 주님께 영예와 찬미를 드리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아시시의 가난한 이는, 우리가 하느님과 평화를 누릴 때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일에 더 잘 헌신할 수 있으며, 이 평화는 모든 민족 사이의 평화와 떼어 놓을 수 없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증언합니다."[3]

* * *

이상으로 서두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마음의 침묵에서 세계의 평화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교회 전통에서 이해하는 헤시카즘과 내적 침묵

2. 정교회의 인간론: 몸과 영혼은 함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다

3. 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념을 치유하고 전인(全人)의 평화에 이르는 길로서의 수덕

[2]1989 년 교회력의 시작일(인딕티온)에 총대주교 메시지가 발표되어 해마다 9 월 1 일을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와 간구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결정은 당시 페르가몬의 대주교였던 요한 지지울라스의 제안(1989 년 1 월)에 따라 같은 해 앞서 시노드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디미트리오스 총대주교의 노선은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가 1991 년에 선출된 직후 이어받아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켰다(크레타 회의 「주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참조). 1992 년에 정교회 수장들은 9 월 1 일을 환경을 위한 범정교회 기도의 날로 채택하였다. 그 뒤로 할키 회의와 물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들이 이어졌고, 세계총대주교에게는 '녹색 총대주교'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5 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 9 월 1 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채택하였다.

[3]교황 요한 바오로 2 세(1989 년 12 월 8 일), 「1990 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Dia Mundial de la Paz 1990).

4. 이웃과의 화해, 그리스도인의 일치, 종교 간 대화, 그리고 세상의 평화로 넓혀지는 길로서의 마음의 평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네프시스'와 '헤시카즘'이라는 용어를 먼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교회의 네프시스 전통에서 '네프시스'와 '헤시카즘'은 나란히 놓인 두 갈래 길이 아닙니다. 지성과 마음이 하는 한 가지 일의 두 측면입니다. 개념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프시스'('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다'는 뜻의 동사 '네포'(nepho)에서 온 말)는 지성이 깨어 지키는 것, 곧 마음의 '문'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각들이 뿌리를 내려 죄스러운 정념이 되기 전에 그것들을 살펴 가려내는 것입니다. 사제 헤시키오스 성인[4]은 네프시스를, 꾸준히 실천하면 정념에 물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영적 방법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성인은 이를 '마음의 헤시키아'라고도 부르십니다.[5]

'헤시키아'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감각과 생각이 모두 침묵하고, 지성이 마음 안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시카즘'은 헤시키아를 가꾸고, 그것을 통해 끊임없는 기도와 하느님을 뵙는 관상(*theoria*)에 이르고자 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교부들이 흔히 네프시스-헤시카즘 전통을 하나로 묶어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6]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네프시스는 마음을 지킵니다.
- 헤시키아는 지켜진 마음 안에 머뭅니다.
- 헤시카즘은 예수기도[7]로 이 둘을 하나로 잇는 길입니다.

---

[4]헤시키오스 성인은 4 세기 말이나 5 세기 초가 아니라 7 세기 또는 8 세기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칼리스토스 웨어가 다음 책에 쓴 서문 참조: 대수도사제 에밀리아노스, 『네프시스에 관한 담화: 헤시키오스 성인 해설』(Λογος περι νηψεως, Ερμηνεια στον Αγιο Ησυχιο), 아테네: Indiktos, 2007.

[5]사제 헤시키오스, 「테오둘로스에게: 네프시스와 덕에 관하여 영혼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로운 단상들」(Λογος ψυχωφελης και σωτηριος περι νηψεως και αρετης κεφαλαιωδης), 3,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Φιλοκαλια των ιερων νηπτικων), 아테네: Astir, 1974, 141-2.

[6]니코디모스 성인은 서문에서 『필로칼리아』를 "네프시스의 보고(寶庫)"(το ταμιειον της νηψεως)이자 "지성의 기도를 가르치는 신비로운 학교"(μυστικον διδασκαλειον της νοερας προσευχης)라고 부른다.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Φιλοκαλια των ιερων νηπτικων), 아테네: Astir, 1974, κγ΄ 참조.

[7]같은 책, 174:168.

네프시스가 없으면 헤시키아는 무기력이나 공상, 혹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헤시키아가 없으면 네프시스는 우리 생각을 겉에서 감시하는 데 그칠 뿐 마음속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헤시키오스 성인은 네 가지 요소, 곧 주의[8], 마음의 헤시키아[9], 예수기도[10], 죽음에 대한 기억[11]을 하나의 일로 묶으십니다.

헤시카즘의 유일한 목표인 신화(神化, theosis)를 향한 여정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회개와 계명의 준수(*praxis*).

2. 네프시스: 마음의 입구에서 생각을 살피는 것.

3. 헤시키아. 외적인 헤시키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적인 헤시키아.

4. 마음 안에서 드리는 지성의 기도.

5. 지성과 마음의 정화, 조명, 신화.

네프시스는 방법이자 덕이고, 헤시키아는 네프시스가 낳고 지탱하는 상태이며, 헤시카즘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덕의 수고 전체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네프시스는 자기 관찰이 되고 맙니다. 네프시스 없는 헤시카즘은 호흡 기법이나 이른바 '영적' 체험을 좇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정교회 전통에서 이 둘은 한 가지 목적에 봉사합니다. 지성이 마음 안에 서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서서, 인간이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치유되는 것, 곧 정화와 조명과 신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I. 정교회 전통에서 이해하는 헤시카즘과 내적 침묵

시나이의 요한 성인(6 세기 후반~7 세기 초)은 위대한 저서 『사다리』(*Klimax*)에서 한 편의 담화(장) 전체를 헤시키아에 할애하십니다.[12] 성인은 헤시키아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헤시키아의 삶에서 첫째가는 일은

[8]같은 책, 5: 142 및 20: 144.

[9]같은 책, 27: 145, 48: 149 및 100: 156.

[10]같은 책, 97: 155, 99: 156, 105: 157, 106: 157, 137: 162, 142: 162, 143: 162-163, 148: 163-164, 149: 164, 152: 165, 174: 168, 175: 168-9, 176: 169 및 196: 172.

[11]같은 책, 113: 158, 155: 165.

[12]시나이의 요한, 『사다리』(Κλῖμαξ), 제 27 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Περι Ἡσυχιάς), PG 88:1101-1140. (PG 는 미뉴의 『그리스 교부 총서』[Patrologia Graeca]를 가리킨다.)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의 것에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은 틀림없이 뒤의 것에도 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시키아의 삶에서 둘째가는 일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음의 일(곧 분심이나 악령에게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글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본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첫째 것(곧 근심에서 벗어남)을 얻지 못한 헤시카스트가 나머지 둘을 얻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13] 시나이의 요한 성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쓰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공부하여 온전히 알게 된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따르는 헤시키아의 철학을 지닌 사람은 그보다 더 드물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헤시키아에 맞지 않으며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14] 또 다른 곳에서는 참된 헤시카스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헤시카스트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게으른 수도자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달려가는 꼭 그만큼 모든 사람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감미로움을 맛보는 일이 끊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15]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헤시카즘이 이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헤시카즘은 삶의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헤시카즘은 후대에 생겨난 신비주의적 경향이 아니라 전통의 참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헤시카즘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교부들의 글에서 '헤시키아'라는 말 자체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와 실천(물러남, 네프시스, 끊임없는 기도)을 가리킵니다. 시나이의 요한 성인은 헤시키아를 마음의 활동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1296~1359)은 『거룩하게 헤시키아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한 변론』(『삼부작』)[16]에서, 이 문제에

[13]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 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2 부, 12, 376. 같은 저자의 다음 대목도 참조: 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 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2 부, 26, 380: "예수에 대한 기억이 그대의 숨결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헤시키아의 유익을 알게 될 것입니다."

[14]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 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2 부, 20, 378-9.

[15]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 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1 부, 25, 369.

[16]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거룩하게 헤시키아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한 변론』(Λογοι ὑπερ τῶν ἱερῶς ἡσυχαζόντων), EPE 2,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Πατερικαι Ἐκδοσεις), 1982, 60-727. (EPE: Ἕλληνες Πατέρες τῆς Ἐκκλησιάς, '교회의 그리스 교부들'.)

철학적으로 접근한 칼라브리아의 바를라암(1290~1348)에 맞서 헤시카스트들을 바로 체험을 지닌 사람들로서 변호하십니다. 「거룩하게 헤시키아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한 아토스 성산 교서」[17](1340)도 같은 입장을 내세웁니다. 하느님에 대한 앎은 삼단논법이 아니라 살아 있는 체험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2. 헤시카즘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려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시고(마르 1:35, 루가 5:16)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루가 6:12) 모습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마태 6:6). 주님의 변모(마태 17:1-9)는 헤시카즘 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팔라마스 성인에 따르면 다볼산의 빛은 성인들을 신화시키는 바로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루가 18:13) 하던 세리의 외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루가 18:38) 하던 예리고의 눈먼 이의 외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예수기도의 복음적 원형으로 여겨집니다.

3. 헤시카즘은 거룩한 사도들에게도 뿌리를 두고 있다

사도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하였고(사도 1:14) 기도를 자신들의 첫째가는 일로 삼았습니다(사도 6:4). 사도 바울로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1 데살 5:17) 하고 권고하는데, 이 계명이 헤시카스트 수행의 토대를 이룹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닌 권능(필립 2:9-10, 사도 4:12)은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17] 1340 년의 유명한 「아토스 성산 교서」는 칼라브리아의 바를라암과 벌인 논쟁에서 아토스 성산의 수도자들이 헤시카스트들을 변호하며 내놓은 간결한 신앙 고백이다. 이 문서는 본질과 에네르기아(활동)를 구분하는 팔라마스의 가르침과 창조되지 않은 빛의 체험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부 전통의 연속임을 확고히 하였다. 당시 아토스 성산의 수도사제였던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이 작성하였고, 성산의 수도원장들과 학식 있는 수도자들이 서명하였다.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아토스 성산 교서」 (Ἁγιορειτικος Τομος), EPE 3,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1983, 496-514 참조.

4. 헤시카즘은 초대 교회 교부들에게도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흐름은 끊어짐 없이 이어집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언』(4-5 세기),[18] 폰토스의 에바그리오스(355-399 년)의 저술,[19] 마카리오스 문헌(4 세기),[20] 포티키의 디아도코스 성인(5 세기)의 저술,[21] 그리고 널리 알려진 시나이의 요한 성인(7 세기)의 『사다리』가 그것입니다.[22] 코린토스의 주교 마카리오스 노타라스 성인(1731-1805)과 아토스 성산의 니코디모스 성인(1749-1809)이 엮으신 『필로칼리아』[23]는 4 세기부터 15 세기까지의 저작을 한데 모음으로써 바로 이 연속성을 보여 줍니다.[24] 마지막으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1341 년, 1347 년, 1351 년)는 팔라마스 성인의 가르침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헤시카즘은 공적 활동을 위한 준비이다

헤시키아는 선교 활동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는 이미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에서 드러납니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40 일 밤낮을 단식과 기도로 지내시며 악마의 유혹에 맞서십니다(마태 4:1-11, 마르 1:12-13, 루가 4:1-13).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공적인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루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루가 4:14) 갈릴래아로 돌아가셨다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로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르심을 받은 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선교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오고, 삼 년이 지난

---

[18] 『거룩한 원로들의 금언』(Ἀποφθεγματα τῶν Ἁγιών Γερόντων), PG 65: 76-440 참조.

[19] 팔라디오스(『라우소스 이야기』, 86, PG 34: 1188)에 따르면 에바그리오스는 54 세에 죽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파나요티스 흐리스투(『그리스 교부학』, 제 3 권, 테살로니키: 총대주교청 교부학 연구소, 1987, 201-2)에 따르면, 에바그리오스는 399 년 무렵 44 세에 안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20] 이집트의 마카리오스, 『영적 설교』(Ὁμιλιάι Πνευματικαί, PG 34: 449-822.

[21] 포티키의 주교 디아도코스,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 제 1 권, 아테네: Astir, 1974, 236-273.

[22] 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PG 88: 632-1164.

[23] 『필로칼리아』 초판은 요안니스 마브로고르다토스가 비용을 대어 베네치아에서 간행되었다.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Φιλοκαλιά τῶν ἱερῶν νηπτικῶν), 베네치아: 1782 참조.

[24] 『거룩하고 하느님을 모신 교부들의 글에서 엮은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Φιλοκαλιά τῶν Ἱερῶν Νηπτικῶν συνερανισθεῖσα παρα τῶν ἁγιών και θεοφορων Πατερων), 제 1-5 권, 아테네: Astir, 1974.

뒤에야 베드로를 만납니다(갈라 1:15-18). 성서는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하지 않지만, 교회 전통은 이 떠남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선 침묵과 내적 준비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대 바실리오스 성인(330-378)도 같은 길을 걸으십니다. 아테네에서 뛰어나게 학업을 마치고 세례를 받은 뒤, 성인은 수덕 생활을 하는 이들을 만나러 이집트와 팔레스티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두루 다니고, 이어 이리스 강과 리코스 강이 만나는 곳 가까이에 있는 폰토스의 안네시로 물러나십니다.[25] 그곳에서 벗인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이 합류하여, 두 분은 기도와 노동과 성서 연구 속에 함께 생활하십니다. 바실리오스 성인은 그레고리오스 성인에게 보낸 열네 번째 편지[26]에서 그 장소와 헤시키아의 의미를 함께 묘사하십니다. 이 체험에서 성인의 『수덕집』[27]이 태어났는데, 이 저작은 동방 공주(共住) 수도 생활의 기초를 놓았고 서방의 수도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28] 폰토스에서 헤시키아의 삶을 보낸 뒤, 대 바실리오스 성인은 훗날 케사리아의 주교로 나서서 교회를 사목하고, 아리우스주의에 맞서며,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위한 '바실리아드'를 세우십니다.

모든 성인은 사막에 살았든 도시에 살았든, 독신이었든 혼인하였든 침묵과 헤시키아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전통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철학자 두 사람이 어떤 원로를 찾아가 유익한 말씀을 한마디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철학자들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사부님, 저희에게 아무 대답도 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자 원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참된 철학자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처음부터 말할 줄 몰랐던 그대들이 언제까지 말하는 법만 배우려 합니까? 그러니 늘 죽음을 묵상하고 침묵과 헤시키아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대들 철학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29]

---

[25]대 바실리오스에 관해서는 파나요티스 흐리스투, 『대 바실리오스: 생애와 행적, 저술, 신학 사상』(Ο Μεγας Βασιλειος, Βιός και Πολιτειά, Συγγραμματα, Θεολογικη Σκεψις), Analecta Vlatadon 27, 테살로니키: 총대주교청 교부학 연구소, 1978 참조.

[26]대 바실리오스, 『서간집』(Ἐπιστολαί), 2 (54-58) 및 14 (58-74), 테살로니키: EPE, 1, 1972.

[27]대 바실리오스, 『수덕집』(Ἀσκητικαῖ) 1 및 2, 테살로니키: EPE, 8 및 9, 1973.

[28]성 베네딕토는 자신의 『수도 규칙』을 지으면서 대 바실리오스의 『수덕집』을 참고하였다. S. P. Benedicti, Regula Commentata 73, PL 66:930A 참조: "...sed et regula Sancti Patris nostri Basilii"("...또한 우리의 거룩한 사부 바실리오스의 규칙도").

[29]요한 모스코스, 『영적 초원』(Λειμωναρίον), 156 장, 『사막의 꽃』(Ἄνθη τῆς Ἐρημίου) 17, 아토스 성산: 스타브로니키타 수도원 간행, 1983, 173; PG 87C: 3024-5.

페르메의 아바 테오도로스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헤시키아의 감미로움을 맛본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30]

아바 루포스는 어느 초심 수도자가 헤시키아가 무엇이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헤시키아란 하느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독방에 머무는 것, 그리고 원한과 교만을 영혼에서 멀리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헤시키아는 많은 덕을 낳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영혼을 보호해 줍니다. 아들이여, 죽음을 자주 기억하면 헤시키아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시키아는 그대를 틀림없이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31]

지금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게론티콘』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덕이 매우 높은 어떤 은수자가 하느님께 모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콘스탄티노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번은 황제가 그의 축복을 받고자 그를 궁전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은수자는 기꺼이 가서 황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황제가 건넨 선물, 곧 꽤 큰 돈을 받았습니다. 자기 거처로 돌아온 그는 밭을 하나 사서 가꾸는 데 마음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 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은수자는 마귀를 쫓아내려 하였으나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귀가 무례하게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 ‘이제 나는 네 말을 듣지 않는다. 네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
> ‘어째서 그러하냐?’ 은수자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
> ‘네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이다.’ 악령이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세상일에 매달리느라 헤시키아와 네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32]

헤시키아와 침묵에 관하여 어떤 원로는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여, 침묵과 헤시키아를 사랑하십시오. 많은 근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대의 지성을 거룩한 생각들로 채우십시오.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악마가 그대를 이길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33]

---

[30] 『게론티콘』(Γεροντικόν), 테살로니키: 정교회 그리스도인 형제회 ‘리디아’(Λυδιά) 간행, 1993, 231.
[31] 같은 책, 232.
[32] 같은 책, 233.
[33] 같은 책, 234.

우리가 사는 이 전자 시대에는 쓸데없는 말이 넘쳐 나고 귀한 시간이 많이 낭비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전화로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듣고 봅니까? 침묵의 덕은 보기 드문 것이 되었습니다. 피민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마태 12:37)라는 성서 말씀을 자주 기억한다면, 천 번이라도 침묵하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34]

어떤 사람이 한 원로에게, 사람은 “심판 날이 오면 자기가 지껄인 터무니없는 (argos, 곧 쓸데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마태 12:36)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원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일에만 관계된 대화는 모두 쓸데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쓸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침묵이 더 낫습니다.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다가도 우리 혀가 해로운 것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35]

‘사막’은 모든 위대한 일에 꼭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영적 여정의 처음 몇 해 동안에만 외딴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큰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때마다 ‘사막’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기도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은수 생활과 침묵과 내적 헤시키아를 찾으셨습니다. 성인은 무릎 꿇는 기도와 단식, 나아가 혹독한 육체적 고행으로 자신의 간구에 힘을 더하셨습니다.

6. 헤시카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모든 경우에 ‘사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물러나며, 평화와 영혼에 유익한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신자의 영적 진보에 그토록 필요한 내적 침묵은 ‘장소’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적 침묵을 얻으려고 반드시 사막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을 우리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길을 보여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마태 6:6) 이 ‘골방’(tameion)이

[34]같은 책, 240.
[35]같은 책, 237.

반드시 외딴 독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들의 해석에서 골방은 흔히 인간의 마음 자체로, '문을 닫는 것'은 감각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사막은 무엇보다 내적 상태, 곧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념의 소음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적 인간'(로마 7:22, 에페 3:16 참조)이 자라나며, 그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나이의 요한 성인은 이렇게 쓰십니다. "몸이 나가지 못하도록 독방의 문을 닫고,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혀의 문을 닫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의 안쪽 문을 닫으십시오."[36]

교회의 전통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사례들로 이를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대 안토니오스 성인[37]은 알렉산드리아의 한 가난한 구두장이가 영적 생활에서 자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 그 구두장이가 자선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일 한가운데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은, 성인의 전기를 쓴 필로테오스 코키노스에 따르면, 끊임없는 기도가 수도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38] 그보다 조금 뒤에, 통설에 따르면 평신도 신학자였던 니콜라스 카바실라스 성인은 직업이나 가정을 버리지 않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그리스도 안의 삶』[39]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사막을 어떻게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까? 작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성화상 앞에서 날마다 서서 하는 기도, 아침에 휴대 전화를 열어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갖는 몇 분의 침묵, 일상의 일 가운데 바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성서를 주의 깊게 공부하는 일, 남을 단죄하지 않도록 혀를 지키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 침묵은 신자의 삶에서 공허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

[36]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 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1 부, 17, 367.

[37]대 안토니오스의 생애에 관해서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스 성인, 『우리의 거룩한 사부 안토니오스의 생애와 행적』(Βιός και ̓πολιτειά τοῦ ὁσιόυ πατροζ ἡμῶν Ἀντωνιόυ), PG 26: 837-976 참조.

[38]필로테오스 코키노스, 『성인들 가운데 계신 우리 사부, 테살로니키의 대주교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에 대한 찬사』(Λοῦος εΎκωμιαστικοζ εἰς τοὺ ἐν ἁγιόις πατερα ἡμῶν Γρηγοῥιον, αῤχιεπισ́κοπον Θεσσαλονικ́ης τοὺ Παλαμᾶν), PG 151: 551-678 참조.

[39]니콜라스 카바실라스, 『그리스도 안의 삶』(Περι ̓τῆς ἐν Χριστῷ ζωῆς), 일곱 편의 담화(Λοῦοι ἑπταΎ, PG 150: 493-725 참조.

이 내적 헤시키아의 열매는 고립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평화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로브의 세라핌 성인(1754-1833 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평화의 영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대 주위의 수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40] 이렇게 ‘가정의 사막’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평화의 샘이 됩니다.

II. 정교회의 인간론: 몸과 영혼은 함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다

둘째 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거룩하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형상대로, 그리고 닮은 모습대로”(창세 1:26-27)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땅의 흙”을 취하여 몸을 빚으시고 “그의 얼굴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창세 2:7). 그러므로 인간은 그저 몸 안에 잠시 머무는 영혼도 아니고 그저 영혼을 지닌 몸도 아니며, 영혼과 몸이 하나로 결합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미 이리네오스 성인(2 세기) 때부터, 인간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하느님께 창조되었고 하느님과의 친교로 부름받았다고 역설합니다. 따라서 정교회의 인간론에는 두 극단, 곧 몸을 숭배하는 것(육체 숭배)이나 몸을 멸시하는 것(마니교)[41]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교회 전통에서 수덕은 인간의 성화와 신화를 그 지평으로 삼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은 인간 전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전체, 곧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실존을 구원하시려고 육화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요한 1:14).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겉모습으로만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과 이성적 영혼을 지닌 참된 인간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온전함을 부인하던 이들에 맞서, 말씀께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치유되지 않았다는 원칙을 이렇게 정식화하셨습니다. “το γαὰπροσ́ληπτον, ἀθεραπ́ευτον· ὅ δε ̓ ἥνωται τῷ Θεῷ, τοῦτο και ̀σωζεται”(

[40] 사로브의 세라핌 성인의 「영적 가르침」(러시아어: Духовные наставления) 참조. 이는 성인의 가르침을 주제별 장으로 엮은 모음집으로, 19 세기에 성인의 초기 전기들과 함께 출간되었다. 「영혼의 평화에 관하여」(О мире душевном) 장이 바로 이 가르침을 펼친다.

[41] 3 세기의 종교. 창시자는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난 마니(216-277 년)이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신 협조자(파라클리토스)이며 ‘빛의 사도’라고 주장하였다. 바흐람 1 세 치하에서 조로아스터교 사제단의 박해를 받은 뒤 감옥에서 죽었다.

취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으며, 하느님과 결합된 것은 구원받는다).[42] 그리스도께서 몸도 취하셨으므로, 우리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치유와 구원으로 부름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플라톤처럼 몸이 영혼의 족쇄요 감옥이라고 믿지 않고,[43]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1 고린 6:19) 사도 바울로는 우리 몸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마 12:1)로 바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이는 교회의 전례 생활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세례성사에서는 온몸이 축성된 물에 잠기고, 견진성사에서는 감각들이 인(印)으로 봉해지며, 성체성혈성사에서 우리는 상징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합니다. 또한 단식과 큰절, 철야, 서서 드리는 기도, 십자성호를 통하여 몸도 기도합니다. 곧 몸도 기도에 참여합니다.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성인들의 몸에 죽은 뒤에도 머문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은 헤시카스트들을 변호하시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영혼만 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전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만져 볼 수 있었던 참된 몸으로 부활하셨고(루가 24:39),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테오토코스(하느님의 어머니)에게서 받으신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사도 1:9-11).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럽게 되신 인간의 몸으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한 신화되었습니다. 창조된 것이 창조되지 않으신 분과 관계 안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로 모든 인간은 이 신화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경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영혼이 몸에서

---

[42]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서간 101: 사제 클리도니오스에게, 아폴리나리오스 반박」(Ἐπιστολὴ 101, Προς Κληδονίον πρεσβυτέρον, Κατα Ἀπολλιναριόυ), PG 37:181 및 EPE 7:182.

[43]플라톤, 『파이돈』 62b, 67c-d, 82e 및 『크라틸로스』 400c: «δοκοῦσι μεύτοι μοι μαλιστα θεόθαι οἱ ἀμφι Ὀρφεά τοῦτο το ὄνομα, ὡς δικην διδουσης τῆς ψυχῆς ὧν δη ἕνεκα διδωσιν, τοῦτον δε περιβολον ἔχειν, ἵνα σῴζηται, δεσμωτηριόυ εἰκονά· εἶναι οὖν τῆς ψυχῆς τοῦτο, ὥσπερ αὐτο ὀνομαζεται, ἕως ἂν ἐκτεισῃ τα ὀφειλομένα, «σῶμα», και ὐδεν δεῖν παραγειν οὐδε γραμμα». (번역: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오르페우스를 따르는 이들이 특히 이 이름을 붙인 것 같다. 영혼이 무슨 까닭으로든 벌을 받고 있으며, 영혼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감옥의 모습을 한 이 울타리를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이다. 그러니 이것은 그 이름이 말하는 대로, 영혼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영혼의 ‘몸’(sōma)이며, 글자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다.”)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필립 3:21).

이것이 정교회의 그리스도론에 바탕을 둔 정교회의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것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수덕이 왜 몸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상처를 입히는 죄스러운 정념을 거스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III. 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념을 치유하고 전인(全人)의 평화에 이르는 길로서의 수덕

셋째 장은 정교회 전통에서 수덕이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념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아바 피민의 것으로 전해지는 사막의 유명한 금언, 곧 "수도자들은 몸을 죽이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정념을 죽이라고 배웠다."[44]는 말을 되울립니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몸은 성령의 성전이므로 인간의 원수일 수 없습니다. 유일한 원수는 영혼과 몸에 모두 상처를 입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수덕의 목적은 치유입니다. 교부들은 교회를 영적 병원으로, 정념을 영혼의 질병으로 봅니다. 고백자이며 순교자이신 막시모스 성인(580-662)에 따르면, 정념은 우리 본성에서 뿌리 뽑아야 할 이질적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45] 그래서 수덕은 영혼의

[44] 『거룩한 원로들의 금언』, ρπδ΄ (184), PG 65: 368 참조. 아바 피민(PG λα΄ (31), 65: 329)도 단식과 온갖 육체적 수덕의 문제에서 신자가 극단적인 육체적 고행에 의지하지 말고 "왕도(王道)"(τὴν βασιλικὴν ὁδόν)를 따라야 한다고 깊은 분별력으로 강조한다.

[45] 고백자 막시모스, 『사랑에 관한 단상』(Κεφαλαια περι ἀγαπης), 셋째 백편(百篇), 3 장과 4 장, PG 90: 1017 참조. 4 장에서 성인은 다음과 같이 짝을 지어 열거한다. «Οὐ τα βρωμ́ατα κακα,́ ἀλλ᾽ ἡ γαστριμαργιά· οὐδε ἡ παιδοποιιά, ἀλλ᾽ ἡ πορνειά· οὐδε τα χρημ́ατα, ἀλλ᾽ ἡ φιλαργυριά· οὐδε ἡ δοξα, ἀλλ᾽ ἡ κενοδοξιά. Εἰ δε τοῦτο, οὐδεν ἐν τοῖς οὖσι κακόν, εἰ μη ἡ παραχρησις, ἥτις συμβαινέι ἐκ τῆς τοῦ νοῦ ἀμελειάς περι τὴν φυσικὴν γεωργιάν.» (번역: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 탐식이 악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음행이 악하며,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탐욕이 악하고, 영광이 악한 것이 아니라 허영이 악하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악한 것은 오용밖에 없으며, 오용은 지성이 본성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긴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오용 말고는 악한 것이 없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앞 장(3 장)(PG 90: 1017)에서 성인은 악을 영혼의 능력들, 곧 욕구하는 능력과 분노하는 능력과 이성적 능력의 오용과 연결한다. «Κατα παραχρησιν αἱ κακιάι τῶν τῆς ψυχῆς δυναμ́εων ἡμῖν ἐπισυμβαινόυσιν· οἷον, τῆς τε ἐπιθυμητικῆς, και τῆς θυμοειδοῦς, και τῆς λογιστικῆς. Και τῆς μεν λογιστικῆς δυναμ́εως παραχρησις ἐστιν, ἀγνωσιά και ἀφροσυνή· τῆς δε θυμοειδοῦς και ἐπιθυμητικῆς, μῖσος και ἀκολασιά. Χρῆσις δε τουτ́ων, γνῶσις και φρονήσις, ἀγαπη τε και σωφροσυνή. Εἰ δε τοῦτο, οὐδεν τῶν ὑπο Θεοῦ κτισθεν́των και γεγονοτ́ων ἐστι κακόν». (번역: "악덕은 영혼의 능력들, 곧 욕구하는 능력과 분노하는

능력들을 없애지 않고 그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욕구는 하느님을 향하게 되고, 분노는 죄에 맞서 싸우는 힘이 됩니다. 수덕은 죄스러운 정념에서 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극단적인 수덕의 지나침을 막는 데에도 마음을 썼습니다. 강그라 공의회(343 년)[46]는 규범 제 1 조와 제 2 조에서 혼인과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멸시하는 자들을 단죄하였고, 사도 규범 제 51 조는 수덕을 위해 실천하는 절제와 하느님의 피조물을 혐오해서 하는 절제를 분명히 구별합니다.[47] 그래서 교부들은 분별을 가장 큰 덕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영적 싸움은 언제나 영적 아버지, 곧 교부들이 특징적으로 일컫는 대로 '알립티스'(aleiptes, 훈련사)의 지도 아래 각자의 힘에 맞게 시작됩니다.

수덕의 목표는 인간의 성화입니다. 영적 투쟁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인간은 신화로 인도됩니다. 이것은 '시네르기아', 곧 협력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애써 싸우지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필립 2:13). 그러므로 수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식과 철야와 기도는 신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사순절의 성가는 몸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단식하라고 우리를 부르며,[48] 예언자 이사야는 이미 참된 단식을 모든 불의를 풀어주고 굶주린 이와 집 없는 이를 돌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이사 58:6-7).

능력과 이성적 능력을 오용할 때 우리에게 닥친다. 이성적 능력의 오용은 무지와 어리석음이고, 분노하는 능력과 욕구하는 능력의 오용은 미움과 방탕이다. 이 능력들의 바른 사용은 앎과 현명, 사랑과 절제이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겨나게 하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탈라시오스에게』(Προς Θαλασσιον), 질문 1, PG 90, 268-9 도 참조. 여기서 막시모스는 정념이 본래 인간 본성과 함께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덕이 무르익은 이들 안에서는 정념이 바르게 쓰이고 하느님을 향하게 될 때 선한 것이 된다고 덧붙인다. 다시 말해 막시모스 성인에 따르면 영혼의 능력들은 본성적이고 선하며, 악은 그것들의 오용이다. 그러므로 치료법은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46] 『피달리온』(Πηδαλιον), 아테네: Astir, 1970, 398. 사도 규범 제 5 조도 참조, 같은 책, 6.

[47] 『피달리온』, 아테네: Astir, 1970, 66.

[48] 『사순절 트리오디온』(Τριωδιον κατανυκτικόν), 첫째 주간 수요일 만과의 이디오멜론(Ἰδιομέλον Τεταρτης Α΄ ἑβδομαδος ἑσπερας), 아테네: Apostoliki Diakonia, 1975, 103: «Νηστευόντες ἀδελφοι σωματικῶς, νηστευσωμεν και πνευματικῶς· λυσωμεν παντα συνδεσμον ἀδικιάς· διαρρηξωμεν στραγγαλιας βιαιών συναλλαγματων· πᾶσαν συγγραφην ἄδικον διασπασωμεν· δωσωμεν πεινῶσιν ἄρτον και πτωχους ἀστεγους εἰσαγαγωμεν εἰς οἴκους, ἵνα λαβωμεν παρα Χριστοῦ τοῦ Θεοῦ το μεγα ἔλεος». (번역: "형제들이여, 몸으로 단식하면서 영적으로도 단식합시다. 불의의 모든 사슬을 풀고, 강압으로 맺은 계약의 매듭을 끊으며, 불의한 문서를 모두 찢어 버립시다.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고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 집에 맞아들여,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께 크신 자비를 받도록 합시다.") 이 성가는 이사 58:6-7 의 성서 구절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인간은 수덕을 통해 겸손을 얻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당깁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야고 4:6, 1베드 5:5; 잠언 3:34 참조)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덕이 교만을 낳는다면 그 의미를 잃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면서도 세리를 업신여긴 자기중심적인 바리사이파 사람의 예(루가 18:9-14)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투쟁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실 때, 그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평화를 누립니다. 사도 바울로는 평화를 성령의 첫 열매들 가운데 꼽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갈라 5:22). 사로브의 세라핌 성인은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를 성령을 얻는 것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49] 정념에서 치유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갈등하며 살지 않으며,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발표의 넷째이자 마지막 장, 곧 마음의 평화가 이웃과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로 넓혀지는 문제로 가는 길을 열어 줍니다.

IV. 이웃과의 화해, 그리스도인의 일치, 종교 간 대화, 그리고 세상의 평화로 넓혀지는 길로서의 마음의 평화

성령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는 (가) 사회의 평화, (나) 그리스도인의 일치, (다) 종교 간 대화, (라) 세계 평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은 심리적 안정이나 죽은 듯한 무위(無爲), 또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평화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요한 14:27)

교회는 성찬예배의 평화의 연도에서 이 순서를 놀랍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리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화합케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50]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시작하여 영혼 안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세상으로, 그리고 모든 이의 일치로 퍼져 나갑니다.

[49]세라핌 성인은 1831 년 11 월 사로브 근처 숲에서 니콜라이 모토빌로프와 나눈 대화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기도와 단식과 철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그리스도교적 행위는 그 자체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참된 목표는 하느님의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1. 사회 평화의 전제 조건인 마음의 평화

사람이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로마 5:1 참조)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야고 4:1) 그러므로 지구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 그 뿌리는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있으며, 그 전쟁이 거기에서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으로, 도시로, 조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번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마태 5:23-24). 이웃과의 평화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의 전제 조건입니다.
캅소칼리비아의 포르피리오스 성인(1906 년 2 월 7 일~1991 년 12 월 2 일)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51]

2. 그리스도인 일치의 전제 조건인 마음의 평화

그리스도인의 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큰 상처이며,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요한 17:21) 하신 주님의 기도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교회들 사이의 신학적 대화와 위원회, 교회 일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워진 마음이 없으면 말은 알맹이 없는 말로 남을 뿐입니다. 분열의 상처는 평화의 왕(이사 9:5)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옥좌에 앉으실 때에만 깊이 치유됩니다.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에페 2:14)

---

[50] 『이에라티콘: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성찬예배』(Ἱερατικόν, Ἡ Θειά Λειτουργιά Ἰωανάνου τοῦ Χρυσοστόμου), 아테네: Apostoliki Diakonia, 2007, 111-12.

[51] 캅소칼리비아의 포르피리오스 성인, 『향기로운 삶과 말씀』(Βιός και Λογοι), 크레타 하니아: 흐리소피기 수도원, 2003, 254-5.

3. 종교 간 대화의 전제 조건인 마음의 평화

종교 간 대화도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혼동이나 혼합주의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들어갑니다. 평화로운 마음만이 두려움 없이 듣고 공격하는 마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로마 12:18)라는 사도의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하느님의 사람이 나눈 진실한 종교 간 대화의 대표적인 예는, 제 5 차 십자군 때인 1219 년에 나일 강 삼각주의 포위된 다미에타 성 밖에서 이집트의 술탄 알카밀[52]을 만나기로 하신 성인의 결단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 몇 사람과 함께 다미에타로 가셨습니다. 사료들은 주로 성인의 동반자였던 일루미나토 형제를 언급합니다.

초기 사료들에서 대략 드러나는 바로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동반자가 적진으로 건너가 술탄에게 인도되었고 여러 날 동안 술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회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슬람 율법으로는 이슬람을 거스르는 설교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볼 수도 있었지만, 알카밀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성인의 말을 정중히 들었고 성인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53]

그로부터 135 년 뒤, 동방의 또 다른 위대한 성인이며 헤시카스트들의 옹호자요 이론가이신 테살로니키의 대주교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은 1354-1355 년에, 공의회나 학자들의 궁정에서가 아니라 오스만인들의 포로로서 무슬림들과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인이 남기신 글들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대화를 상세히 전하는 가장 이른 비잔틴 증언에 속합니다.

---

[52]알카밀(Al-Kāmil, 1180 년경-1238 년)은 살라딘의 조카로, 학자들과 수피들을 곁에 둔 교양 있는 통치자였다. 1219 년 8 월 29 일 십자군이 크게 패한 뒤 휴전이 이어졌다. 알카밀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집트를 포기한다면 예루살렘과 그 성벽을 쌓을 돈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다. 교황 특사 펠라기우스와 군대의 일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기간에, 아마도 1219 년 9 월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무슬림 진영으로 건너갔다.

[53]프란치스코 성인은 십자군의 외교관으로서 술탄 알카밀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성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였고, 초기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슬림 술탄과의 만남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성인에게 흔적을 남겼다. 성인은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Regula non bullata, 1221 년 수도규칙)에서 형제들이 “사라센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쓴다. 곧 다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복종하며 살거나,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설교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의 평화로운 현존을 구상한 초기 서방 문헌 가운데 하나이다.

1354 년 3 월, 성인은 황제의 사명을 띠고 테네도스에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인이 탄 배는 현재 갈리폴리 근처에서 나포되었는데, 그곳은 지진으로 성벽이 무너진 뒤 오르한의 투르크인들이 막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성인은 비티니아(프루사, 니코메디아, 니케아)에 약 일 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1355 년에 거액의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세 편의 글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보낸 편지」[54](곧 테살로니키 교회에 보낸 편지), 그보다 짧은 「포로로 잡혔을 때 쓴 편지」,[55] 그리고 오르한을 섬기던 그리스인 의사 타로니티스가 목격자로서 기록한 「무신론자 히오네스 [형제들]와의 대화」[56]입니다.[57]

여기서 강조해 둘 만한 흥미로운 점은,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이 성령의 내적 평화를 지니고 계셨기에 논쟁적인 방식이 아니라 차분하고 호교론적인 방식으로 종교 간 대화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그리스도인과 투르크인이 함께 사는 것을 보시고, 이는 서로가 상대의 신앙을 알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경륜(이코노미아)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테살로니키의 양 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투르크인들을 야만인이라 일컬으며, 신자들에게 인내와 덕을 권고하십니다. 성인과 대화한 이들이 개종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인이 이 글들을 쓰신 목적

[54]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자신의 교회에 보낸 편지」(Ἐπιστολὴ πρὸς τὴν ἑαυτοῦ Ἐκκλησιάν),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EPE 7, 1994, 160-196.

[55]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포로로 잡혔을 때 쓴 편지」(Ἐπιστολὴ ὅτε ἐάλω),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EPE 7, 1994, 198-208.

[56]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의사 타로니티스가 기록한, 무신론자 히오네스와의 대화」(Διαλεξις προς τους ἀθεους Χιονας, συγγραφεῖσα παρα τατροῦ τοῦ Ταρωνειτου),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EPE 7, 1994, 210-224. 히오네스의 기원과 종교적 신념에 관해서는 파나요티스 흐리스투, 「서론」,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EPE 7, 1994, 63-68 참조.

[57]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이 무슬림 투르크인들과 나눈 세 차례의 토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은 1354 년 6 월 프루사 근처에서 에미르 오르한의 손자 이스마일과 이루어졌다. 이 젊은 왕자는 성인을 식사에 초대하여 그리스도와 무함마드에 관해 물었다. 팔라마스는 이 대화가 정중하고 열린 것이었다고 묘사한다. 저마다 자기 입장을 밝혔고 적의 없이 헤어졌다. 두 번째 토론은 가장 공식적인 것으로, 오르한의 명령에 따라 이슬람을 받아들인 그리스어 사용자들인 히오네스와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에 관해 들었고, 투르크인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았으며, 전에 믿던 것을 버리고 스스로 투르크인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토론은 하느님의 일체성과 삼위성, 그리스도의 신성, 이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다루었다. 팔라마스는 또한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말씀이요 영이라 부르는 쿠란을 활용하여, 시작이 없으신 하느님은 말씀(이성)이 없는 분도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니시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함께 영원하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히오네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팔라마스 자신은 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만, 좀 더 최근의 일부 학자들은 그들을 유다계 집단이나 혼합주의 집단과 연결한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어를 썼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세 번째 토론은 니케아에서 무슬림 종교 교사인 타시마니스(tasimanes, Tasimanis) 및 그 주변 사람들과 이루어졌다. 주제는 하느님의 유일성,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였다. 하느님께서 말씀을 낳으시려면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팔라마스는 양쪽이 함께 받아들이는 동정 탄생의 사실로 대답하였다. 마리아가 남자 없이 그리스도를 낳았다면, 하느님께서는 더더욱 아내가 필요 없이 비육체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낳으신다는 것이다.

가운데에는, 투르크 무슬림들과의 접촉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물러선 것을 뜻한다는 주장을 퍼뜨리던 반대자들을 진정시키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4. 세계 평화의 전제 조건인 내적 평화

내적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도 유토피아적인 꿈으로 남을 것입니다. 노아의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듯이(창세 8:9), 평화의 비둘기도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안에서는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평화 운동은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시는 분, 곧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어 "두 손바닥을 펼치시고 전에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으셨으며",[58] 십자가의 죽음으로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에페 2:14)을 허무신 분이 없다면, 평화 운동은 문제의 뿌리에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한 행진'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가족과는 전쟁을 벌이는 모순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 *

발표를 마치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내적 평화는 개인의 평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평화, 종교 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르는 외길입니다. 마음의 침묵에서 세상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외길은 그리스도 안의 삶에 뿌리를 둔 삶의 방식이자 내면의 자세인 헤시카즘을 실천함으로써만 닦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도들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의 '하나인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속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중대한 죄인 그리스도교 분열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될 때에만 모든 사람의 일치와 세상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곳 우리 조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여는 실로 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시시 정신 40 주년은 그 의미와 목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58] «Ἅπλωσας ταῖς παλάμας καὶ ἥνωσας τὰ τὸ πρὶν διεστῶτα…» (번역: "당신께서는 두 손바닥을 펼치시고 전에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으셨나이다..."), 『트리오디온』, 성 대 토요일 카논 제 3 오디.

감사 인사와 선물 증정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는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과 아시시 평화기도 40 주년을 기억하며, 다미에타에서 이루어진 성 프란치스코와 술탄 알카밀의 만남을 그린 성화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 증정합니다.

대주교 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리이다.

◎ 아멘.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약력

성명 Zografos Aristotelis

현재 소속과 지위 정교회 한국대교구 대주교 2008 년부터

약력

1983 년 그리스 아테네 국립대학교 신학대학 학사

1985 년 정교회 보제 서품

1991 년 정교회 사제 서품

1993 년 미국 성 십자가 그리스 정교회 신학대학원 석사 교부학

1996 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원 교회사 및 프린스턴대학교 예술사 수학

1998 년 그리스 아테네 국립대학교 신학대학 박사

1999 년 정교회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주임사제

2004 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어 교수 2025 년 2 월 28 일 퇴직

2005 년 정교회 세계총대주교청 소속 질론의 주교로 선출 및 서품

2008 년 정교회 한국대교구 대주교 착좌

2017 년 및 2025 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회장

그 외 주요 활동

- 이집트 시나이 성 카테리나 수도원 비잔틴 유물 연구원
- 정교회 신학, 영성, 전례, 선교, 교부학, 비잔틴 성화, 교회사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대학·기관 초청 강의

주요 저서 및 논문

- The Social Teachings of St Gregory Palamas, Based on His 63 Homilies, (Holy Cross G.O.T.S.) Brookline, MA, 1994.
- The Contributions of St. Basil the Great to the Formation of the Monastic Ideal,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J, 1996.
- "The Bishop of Love and Peace", Bishop Gerasimos of Abydos, The Spiritual Elder of America, ed. by Fr. Peter A. Chamberas, Brookline, MA: Holy Cross Orthodox Press, 1997, pp. 126-137.
- "Iconography in the Liturgical Life of the Medieval Greek Church", The Liturgy of the Medieval Church, ed. by Thomas J. Heffernan and E. Ann Matter, Kalamazoo, Michiga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2001, pp. 517-550.
- “Educational Prerequisites and Theological Underscorings for the Development of Orthodox Christian Mission” (Church and Society, Orthodox Christian Perspectives, Past Experiences, and Modern Challenges, studies in Honor of Rev. Dr. Demetrios J. Constantelos, ed. by George P. Liacopoulos, Boston, MA: Somerset Hall Press, 2007, 215-263). The same in Greek, Sinaxe, 78 (2001) 21-38.
- “정교회의 사순절 영적 여행 코스”, 오늘 문화매거진, 서울, 2003, 34-35.
- “정교회 성화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분으로서 또 하늘보다 더 넓으신 분으로서의 테오토코스”, 영성생활, 서울, 도서출판 영성생활, 2003, 50-66.
- “영감의 예술”, The Russian Icons, Inspired Art, 서울, 석경미술연구소, 2003.
- “서미경의 비잔틴 성화, 모자이크”, 미술시대, 서울, 2004, 120-121.
- 비잔틴 성화, 영성 예술, 한국 정교회 출판부, 2004.
- “Το πνεύθος στην ὀρθοδξη παραδοση και στην Ἱεραποστολή”, Συνάξη, 100, 2006, 62-73.
- Book Review: Future, the Background of History. Essays on Church Miss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By Dr. Thanasis N. Papathanasiou, Montreal, Quebec, Canada: Alexander Press, 2005, pp. 141, in Mission Studie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ission Studies, vol. 24, No 1, 2007, pp. 163-164.
- Ὁ Γαβριηλ Θεσσαλονικης και το ἀποδιδομενο εἰς αὐτον ἀνεκδοτο Ὁμιλιαριο, Γραμματολογικη, φιλολογικη και θεολογικη μελετη, Θεσσαλονικη: Κεντρο Βυζαντινῶν Ἐρευνῶν, 2007. [Gabriel of Thessalonica and the Unpublished Homiliarion Attributed to Him. A Grammatological, Philological and Theological Study, Thessalonica: Byzantine Research Centre, 2007].

- "Similarities in the Iconography of Jesus and Buddha", 종교-문화-그리고 종교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국제학술대회, 2007, 27-41.
- “거룩함의 의미”, 사로브의 천사 세라핌 성인, 서울, 한국정교회 출판부, 2007, 3-10.
- “성 요한 크리소스톰과 선교”, 성 요한 크리소스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안식 1600 주년 기념 심포지엄 (407-2007), 한국 정교회 대교구, 2007, pp. 32-42.
- “역사 교과서 내용의 수정에 대한 제의”, HUF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ign Studies, 1 (2008) pp. 279-288.
- “Το Ὑπένθος στην ὀρθοδοξη παραδοση και Ὀστην Ἱεραποστολην”, Ἑλληνορθοδοξη Πορειά, Ἀνθολογίο Κειμένων, ἐπιμελεια: Κωνσταντῖνος Ι. Χολεβας, Ἀθηνα: Δομη, 2008, 425-445.
- “Ἡ Ὀρθοδοξιά στα Ὀσχολικα ἐγχειριδια τῆς Ν. Κορεάς”, Συνάξη, 106, 2008, 80-88.
- “Orthodox Christian Spirituality and the Prayer of the Heart or the Jesus Prayer” (Mystical Tradition and Autobiography as the Source of the Multi-Cultural Spirituality in a Global World,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Sogang University, Seoul, October 20-24, 2008, 56-64).
- "Ἡ Ὀρθοδοξη Ἱεραποστολη Ὠμπροστα Ὀτις νεές προκλησέις" (Ἀνατυπο, Πανελληνια Ἕνωση Θεολογών, Ἀθηνα: 2009).
- Ὁμοιοτητες στην εἰκονογραφιά Χριστοῦ και Ὂουδα, (Ἀθηνα: Μαΐστρος, 2009).
- “Ψωμι ἢ Μπαπ; Σχεση ἀμφιῤροπη” / “Bread or Steam Rice?”, Βημοθυρο, τεῦχος 2-3, 2010, 65-71.
- «Η Ορθοδοξη Διασπορα Ὁστην Κορεά» (“The Orthodox Diaspora in Korea”), Pastorale Della Diaspora Ortodossa, Βενετιά-Venezia: 2011, 89-97.
- «Γαβριηλ Θεσσαλονικης», MOXE 4 (2011), 483.
- 그리스도인의 죽음, 목회-사목적 접근, 2012.
- “정교회 확산(Diaspora)의 본보기, 한국”, 한국에서 만나는 러시아 정교, 고려대학교 ‘한러 대화’ 문화예술분과, 2012, pp. 28-36.
- «성 에프렘의 기도: 영적 정화를 위한 실천적 지침», 정교회출판사, 서울, 2013.
- “영성의 예술, 정교회 예술의 상징과 의미”, 문화영성대학원 10 주년 기념특강, 가톨릭대학교, 2013.
- “일치를 위한 정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의 분투”,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신앙, 실천, 영성, 제 14 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2014.
- “정교회와 이콘”, 세계문화유산 속으로 1. 그리스편, 2014 년 인문아카데미 봄학기 금요강좌, 예술의 전당, 2014.
- “박해받고 있는 정교회”, 제 550 호 회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14.

- “성화; 정교회의 하나의 귀중한 영적 보물”,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 세계문화과정 제 30 기 강의교재, LH 토지주택박물관, 2014.
- «Εμμεσες Επιδρασεις της Ελληνικης στην Κορεατικη Γλωσσα» (Indirect Effects of Greek in the Korean Language.), στον τομο, Η διαχρονικη συμβολη της Ελληνικης σε αλλες γλωσσες, Επιστημονικη επιμελεια: Γεωργιος Καναρακης, Εκδοσεις Παπαζησης, Αθηνα 2014, 645-663.
- “분열인가, 개혁인가? 동·서방 교회 대분열(1054)의 가장 주된 원인”,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자료묶음, 2015 년 1 월 22 일 – 4 월 30 일, pp. 15-21.
- “The Orthodox Witness in the Korean Peninsula. A Historical Approach”, Korean Church, God’s Mission, Global Christianity, ed. by Wonsuk Ma and Kyo Seong Ahn, Regnum Edinburgh Centenary Series, Volume 26,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Oxford, UK, 2015, 101-113.
- “Indirect Influences of the Greek Language on the Korean Language”, in The Legacy of the Greek Language, ed. by George Kanarakis, Peridot International Publications: New York – Boston, 2017, pp. 697-716.
- “St. Chrysostom’s Constitution for Christian Witness: Universal Principles and their Relevance for Korean Orthodox Identity”, GOTR, vol. 62, Spring-Summer 2017, no 1-2, 45-81.
- «영성 예술: 비잔틴 성화», 정교회출판사, v.1-2, pp. 512, 서울, 2018.
- “A Monk’s Repose: The Icon of The Dormition of Saint Ephrem the Syrian and Contemporary Orthodox Monasticism”,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 48 집, 2018, 53-81.
- «Main Lines of Byzantine Iconography», 종교와 힐링: 정교회 예술을 중심으로, Religion, Healing, Art of the Orthodox Church, 서강대학교, Seoul 2018, pp. 5-13.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
- «Συγχρονη Ορθοδοξη Ιεραποστολη, στον τομο: Πρακτικα Διεθνους Επιστημονικου Συνεδριου με Θεμα: Ευαγγελισμος και Ιεραποστολη κατα τον Αποστολο Παυλο, ΚΔ΄ Παυλεια, Ιερα Μητροπολις Βεροιας, Ναουσης και Καμπανιας, Βερoια: 2018, 361-366.
- «Το χρυσοστομειο καταστατικο για την διαδοση της χριστιανικης μαρτυριας», Εκκλησια – Θεολογια – Βασιλεια, Τιμητικος Τομος για τον Καθηγητη Γεωργιο Π. Πατρωνο, Εκδοσεις Σμιλη, Αθηνα: 2019, 77-100.
- “Korea: A Case Study in Orthodoxy”, Christianity in East and Southeast Asia, ed. by Kenneth R. Ross, Francis D. Alvarez sj and Todd M. Johns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UK, 2020, pp. 282-294.

마치는 말씀

마음의 침묵에서 시작된 평화가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종교 간 대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메모

메모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오복음 5 장 9 절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2026 년 10 월 30 일 정동 작은형제회 수도원